

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통신서비스로 알뜰폰을 성장시키기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

I 현황 및 문제점

- 알뜰폰은 저렴한 서비스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으며, 이용자가 크게 증가*하면서 과점화된 통신시장에 새로운 경쟁 촉진
 - * 가입자 948만 회선으로, 전체 휴대폰 회선 수(5,698만개) 대비 16.6% 수준('24.9월 기준)
- 하지만, 알뜰폰은 서비스 질이나 시장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
 - (자생력 확보 미흡) 알뜰폰사는 자체 요금제를 설계·출시할 수 있는 독자적 역량이 부족하여 이통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한계
 - (부실한 이용자 보호체계) 알뜰폰사가 수익과 직결되는 고객 유치에 집중하고, 정보보호*, 고객 응대 등 기본 서비스는 미흡
 - * 본인인증 시스템 부실로 알뜰폰 비대면 부정개통 사례 발생('24년上)
 - (이통 자회사 중심의 시장 편중) 이통 자회사가 전체 알뜰폰 이용자의 47%를 차지*하면서 이통사 영향력이 알뜰폰 시장으로 확장
 - * 이통사 자회사(5개) 444만명, 금융권(1개) 40만명, 그 외(51개) 464만명('24.9월 기준)
- 이에, 알뜰폰이 이통사와 차별화되는 이용자 편익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추진

II 비전 및 추진전략

비전	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	
추진 전략	독립계 알뜰폰사 요금·서비스 경쟁력 강화	⇒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
	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	⇒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알뜰폰 이용
	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	⇒ 이통 자회사-독립계 대·중견기업 간 활발한 경쟁 촉진

Ⅲ 주요 과제

1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

- (도매대가 인하) 데이터 도매대가 대폭 인하* 및 대량구매 추가 할인 확대**를 통해 최대 52%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(1.29원/MB→0.62원/MB)

* 제공비용 기반 방식 도입을 통해 36% 수준 인하(現 1.29원/MB → 後 0.82~0.83원/MB)

** 연단위 선구매 신설(SKTEL 5만TB 이상 25% 할인), 대량 할인 확대(최대 現 13% → 後 18%)

◆ (도매대가 인하시 효과) 이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20~30기가 구간대까지 이통사와 차별화된 알뜰폰 '자체요금제' 출시 가능 (현재는 10기가대 수준 출시)

- (Full MVNO 출현 지원) 이통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'Full MVNO*'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 지원

* 통신망은 이통사로부터 빌리되, 교환기·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춘 알뜰폰사

- 이통사에 대한 네트워크 연동 의무화(제도 개선), 설비투자(정책금융) 지원
- Full MVNO의 안정적인 연동 보장을 위해 Full MVNO에 대해서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확대 추진 (現 SKT → 後 이통3사)

- (부가서비스 확대 등) 자체요금제와 연계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(QoS)*, 해외로밍 상품(1→4종) 제공 확대

* 기본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데이터를 제한된 속도(1Mbps 등)로 제공

- 5G 재판매 요금제의 수익배분율(이통사 몫) 인하(9종, 1~1.5%p)
- 중소 알뜰폰사 대상 회선 기본사용료를 단계적으로 감액*

* (휴대폰) 1,400원 → '24년분 1,300원 → '25년 1,200원 → '26년 1,100원

- (자체요금제 설계 협상력 제고) 이통사는 알뜰폰사의 자체요금제 설계에 협조하도록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

👁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 등 알뜰폰만의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 가능, 독자적 요금 설계·운용 역량을 가진 대형화된 Full MVNO 등장 여건 마련

2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

- (정보보안 의무 강화) 부정개통 등 대응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 신고 의무 부여
 - 정보보호 보안역량에 대한 주기적 확인을 위해 매년 점검 실시
- (등록요건 강화) 고객보호 및 보안 역량이 미흡한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알뜰폰사 등록 요건 상향(시행령 개정)
 - 자본금 기준을 상향하고(3억원→10억원) 이용자 보호계획서 제출 의무화
- (고객센터 편의성 제고) 해지 절차 구체화 등 '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' 개정, 주요 고객센터의 이통사 지원 등 불편 해소 추진

👉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여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이용

3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

- (도매대가 제도 전환 대응)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방식(사전규제)에서 사업자간 자율협상 후 신고 방식(사후규제)으로 전환 예정('25.3월~)
 - 사후규제 환경에서 이통사의 지위남용 방지를 위해 부당한 협정은 신고 반려 또는 시정명령할 수 있게 세부 판단기준 신설(시행령 개정)
 - 알뜰폰 시장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실태조사를 통해 도매대가 사후규제 효과성 및 사전규제 재도입 필요성 등 검토
- (중소 알뜰폰 활성화 지원) 이용자의 편리한 가입을 지원하는 온라인 유통망* 제공,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등을 통해 안전한 중고폰 확산
 - * (이통사의 통합 가입 서비스) KT '마이알뜰폰' 27개사, LGU+ '알닷' 21개사

👉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·중견기업이 활발히 경쟁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

IV 향후 계획

-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: '25.1월~
- 이통사-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 갱신 : '25년 上